

행복한 시민 · 더 큰 완성 위한 교두보 마련

'작지만 강한 도시' 남원 재입증

2021년 남원 시정은 그야말로 시민이 행복한 더 큰 완성을 완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해였으며, 전 공직자는 행복한 시민 더 큰 남원 우리가 함께 합니다 라는 시장목표로 관광 지역경제, 교육·복지 농업 등 각 분야별 현안사업 추진에 모든 힘을 쏟은 결과 역대 최대치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관광예술도시 완성 본격 추진 ▲특리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 등 여러 성과를 이뤘다면서 '작지만 강한 도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시 남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남원시의 평가는 더 호평일색이었다.

남원시는 한국메트로시스템본부가 실시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7년 연속 수상했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북도 1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밖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에 기여하여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이에 역동적으로 달려온 2021년 남원 시정의 분야별 주요성과를 알아본다.



첫 랜선 시장설명회

○시민과의 약속 공약 이행 착착
이환주 시장은 민선 7기 시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올해 시정 최우선 과제인 공약이행을 적극 추진, 5대분야 34개 사업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금인봉 일원 시민공원화 사업 ▲민요공연 조성 및 남원읍성 복원 정비 등 28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등 80% 넘는 추진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2022년도 국가예산은 역대 최대치인 총 3,145억원을 확보, 이는 2021년도보다 409억원이 증액된 규모이자 역대 최대 규모이다. 주요사업으로 ▲대강 사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사업비 456억)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103억)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60억) ▲광치산립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75억) ▲어린이체험과학관 조성(20억) 등을 확보했다.

특히 ▲남원교도소 건립 ▲국립의화전문대학원 설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남원읍성 디지털기술 활용형방안연구 ▲친환경경관기열차 기술개발(R&D)사업 등이 반영되면서 시정 주요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국가 대형 SOC사업 투자기반도 마련돼 남원지역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 고속화사업과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건설을 신규사업으로 포함했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7개년 계획에 남원시 관내 4개 노선이 포함, 향후 지역 내 교통인프라 확충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관광예술도시 '원성' 본격 추진

올해 남원시는 시정추진에서 문화관광 분야는 적지 않은 성과를 나타냈다. 남원시가 추진하는 다채로운 관광사업들로 인해 남원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고 있는데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관광예술도시 완성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남원시는 지난 10년간 광한루원 주변 5개 지구 등지에 추진해 온 남원에 춘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광한루원과 구도심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를 형성 중이다.

관광루원 주변으로 남원다움관, 안숙선 명창의 여정, 화인당 등 각종 관광인프라들이 조성되면서 연계관광이 가능해졌고, 광한루원 일대 전체가 다채로운 관광요소로 가득차고 있다. 시내권 관광동선이 확장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심권 관광동선이 날로 확장되고 있다. 순수 민간자본 388억원을 투입해 남원관광지 내 춘향테마파크와 합파우소리체험관, 김병중 시립미술관을 연결하는 총 연장 2.44km의 관광형 모노레일 설치 등이 2022년 5월 개통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합파우 유원지 일대에는 합파우소리체험관을 기준으로 새로운 남원시의 관광패러다임을 이룰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이 한창 추진 중이며, 남원관광지 RE-PLANS사업 합파우 지방정원 등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이들 사업들이 추진되면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간 관광연계성이 강화돼 남원관광지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문화관광예술도시 남원'으로써 면모를 더욱 갖추게 된다.



남원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추진 도심권 관광동선 확장 중

남원형 공공배달앱 '월매요' 지역경제 순순환 효과

화장품사업 통한 남원 미래먹거리 기틀 더 확충



동네한바퀴

○골목상권 부양책 추진/남원의 미래 먹거리 기틀 마련
무엇보다 올해 남원시정 성과에서 눈에 띄는 성과는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서민경제부양책 추진이다.

남원시는 올해 코로나 19 여파로 서민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더욱 성공적으로 인출시키고, 공공배달앱 출시를 통해 골목경제를 회복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남원사랑상품권의 경우 월 모바일상품권 50만원, 지류형상품권 50만원 등 총 월 100만원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게 할인을 적용시켰으며, 시민과 상점의 사용 및 환전을 용이할 수 있도록 3,500여 곳이 넘는 가맹점과 67개 구매처를 대대적으로 확보하기도 했으며, 모바일 상품권 발행과 카드형 남원사랑상품권까지 출시, 구매방식을 넓힌 것도 비결로 남원사랑상품권은 올해 760억 원을 발행해 2,028억원 판매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시행 3년 만에 거의 모든 시민이 현금이나 카드 대신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될 정도로 지역화폐가 실질경제 활성화에 핵심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특히 올해 남원시가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한 남원형 공공배달앱 '월매요'는 남원사랑 모바일 상품권과



공공배달앱 '월매요'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연계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순순환 경제효과를 북돋기 유망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남원시는 올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금융특례지원 및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등을 통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지원했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다졌고, 화장품사업을 통한 남원의 미래먹거리 기틀도 더 확충했다.

사이에 조성된 남원일반산업단지는 작년 이어 올해 2공구를 착공, 기업유치를 벌인 결과 천장재를 제조하는 (주)나눔휴팩을 비롯하여 탄소나노다이아몬드 생산업체인 (주)케이메이스트 등 9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3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주)케이메이스트 유리는 지난 14일 제2회 수출 및 투자 유공인의 날 행사에서 전라북도 내국인 투자우수기업에 선정됐고 광치산립단지에 입주해있는 (주)케이메이스트는 벤처기업 수출우수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환주 시장이 취임 초부터 잘 사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했던 남원의 화장품 사업은 2015년에 5개사였던 화장품 기업이 올해 26개사, 매출은 37억원에서 350억원으로, 고용은 44명에서 320명까지 확대될 정도로 남원의 미래 먹거리 원으로써 약진하고 있다.

최근 남원지역에 입주해 있는 화장품 기업들이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에서 수출탑을 달성할 정도다.

내년에 남원 코스메틱 비즈센터가 완공돼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매출 2,000억원, 고용은 700여명 정도로 더욱 큰 폭의 성장이 이뤄질

우선 농업인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월급제지원 등 농가소득 안정망을 확충하고 농작업 대행 및 농업경영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주력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추진하는 '농민공익수당'은 1.2차에 걸쳐 총 1만500여 농가에게 연 60만원(남원사랑상품권), 67억여원을 지급했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특히 남원시는 올해 전국 제일의 원예농가 경쟁력 강화와 명품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전국에 유통망을 확대하기도 했다.

포도, 복숭아, 사과, 배, 딸기, 파프리카, 상추, 방울토마토, 화훼, 친환경농산물 등 692만866톤의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됐으며, 수익만 2,300억 원에 달하며, 전북 최초로 지난 3월 그린뉴딜종합계획의 일환에서 남원시 2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앞장 서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참여형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을 적극 발발 및 추진해 온실가스 배출저감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6년 연속 2021년 저탄소생활실천 최우수 지자체로 꼽히기도 했다.

○각종 생활환경 조성·온택트 소통행정 추진

남원시는 올해도 안전한 도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진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시가지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올해 완공하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며, 환경부의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하천 수질개선을 극대화시켰다.

이밖에도 정릉치 순환버스 운행 개선과 통학용 시내순환버스를 1대 증차하는 등 학생 및 거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시켰으며,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범죄예방 시설물 LED 로고패터를 207개소에 설치하고 관내 방범용 및 재해예방을 위한 CCTV를 110대 추가 설치, 안전한 도시환경도 구축했다.

올해 초 전북 최초로 랜선 시장설명회를 개최해 주민과 쌍방향 소통·공감하는 장을 마련한 데 이어 이후에도 랜선시장설명회 후속으로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환주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를 진행하면서 시장설명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의 면모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찾아가는 현장민원,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현장체험의 날' 등을 운영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통한 친절과 감동서비스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마을의 속진사업을 해결하는 하는 등 주민의 생활 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이 행복한 더 큰 남원을 완성하기 위해 분야별 다양한 시정을 추진하면서 남원의 미래를 준비했다.

이환주 시장은 "올해 역시 코로나19 재난상황이 계속됐지만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올해 시정 성과를 토대로 민선 7기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에는 하나 되는 시민, 행복도시 남원을 건설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2021년의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